

# 둔내면(屯內面)

## [위 치]

둔내면은 동쪽으로 평창군 방림면, 서쪽으로 청일면과 갑천면, 남쪽으로 안흥면, 북쪽으로 평창군 봉평면과 각각 접해 있다.

## [연 혁]

둔내면의 지명은 둔창(屯倉)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둔창이란 둔전(屯田)에서 수확되는 곡식을 저장하는 곳으로 둔방내리에 둔창이 있었다. 따라서 둔창이 있는 곳이라 하여 둔창내(屯倉內)라 부르다가 줄여서 현재와 같이 둔내(屯內)라 부르게 되었다. 두원리, 둔방내리, 마암리, 삽교리, 석문리, 영랑리, 우용리, 자포곡리, 조항리, 현천리, 화동리 등 11개리를 관할하다가, 1973년에 안흥면 궁종리가 둔내면으로 새로 편입되고, 영랑리 일부가 안흥면으로 편입되었으며, 법정리로만 남아 있는 태기리를 합하여 현재는 법정 13개리로 되었다.

## 궁종리(弓宗里)

마을 지형이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활마루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진동, 옷말, 아랫말을 병합하여 상궁종리라 하다가, 1937년에 궁종리로 고쳤다. 안흥면에 속해 있다가 1973년 둔내면으로 편입되었다.

**견힌골** [골] 이 골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지붕이 날아갈 정도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숲** [산] → 죽림산

**돌모뎡이** [마을] 중간마을을 달리부르는 것으로, 돌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둔지봉** [산] 그 지명의 유래는 모른다.

**무례울** [골] → 진구비

**벼락박골** [골] 갑천리 상대리와 통하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있는 바위가 벼락을 맞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물등(石物등)** [고개] 궁중리 2반과 3반의 경계가 되는 능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문인상(文人像), 비좌(碑座), 상석(床石) 등 석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숲밭** [터] 숲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말** [마을] 궁중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아래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산넘애** [마을] 궁중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앞산 너머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한 가구가 있다.

**여우박골** [골] → 유박골

**웃말** [마을] 궁중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위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대골** [골] 중간말에 있는 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유박골** [골] 진동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는 모른다. 여우박골이라고도 한다.

**점고개** [고개] 갑천면 상대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웅기가마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롱고개** [고개] 마을을 올라오며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는 모른다.

**죽림산** [산] 풋대봉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숲’, ‘풋대봉’이라고도 한다.

**중간말** [마을] 궁중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중간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돌모퉁이’라고도 한다.

**진구비** [골] 궁중리 마을 도로와 6번 국도가 만나는 곳에 있는 계곡을 가리키는 것으로, 계곡이 깊고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례울’이라고도 한다.

**진동** [능선] 능선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갑천 매일리에서 궁중리를 거쳐 안흥까지 연결되어 있다.

**칠송배기** [터] 현천리와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예전에 이곳에 큰 가지가 일곱 개로 뻗어있는 소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궁중리 3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풋대봉** [산] 죽림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풋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숲’, ‘죽림산’이라고도 한다.

**호랑바위** [바위] 죽림산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다가 이 바위에서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활마루** [마을] 궁중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지형이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황아재** [고개] 우천면 하궁리와 통하는 지름길이었으나,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두원리(斗元里)

두태(豆太)가 잘 되므로 두태버덩, 또는 두원(豆原)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미악골, 차돌배기, 산막골, 고든골을 병합하여 두원리라 하였다.

### [두원1리]

**아랫말** [마을] 하두원이라고도 하며, 두원리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원1리 1반에 속한다.

**양짓말** [마을] 두원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옹장골** [골] 예전에 이 골에서 옹기를 구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간말** [마을] 중두원이라고도 하며, 두원리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원1리 2반에 속한다

**중두원** [마을] → 중간말

**중두원 느티나무** [나무] 중두원에 있는 느티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수령이 600년 이상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19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이 느티나무 밑에 서낭당이 있어 마을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번영, 풍년을 기원하였다.

**지둔지** [마을] 중간말과 우용리에 접해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땅이 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질둔지’라고도 한다.

**질둔지** [마을] → 지둔지

**차돌배기** [마을] 두원리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차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두원** [마을] → 아랫말

## [두원2리]

**고든골** [마을] 두원2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곧게 뻗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직동'이라고도 한다.

**구석말** [마을] 두원2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한쪽 구석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굴뚝골** [마을] 두원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 지형이 굴뚝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태버덩** [터] 두원리의 다른 이름으로, 콩, 팥이 많이 생산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스키장이 되었다.

**마산등** [산] 구석말 앞에 있는 산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마을에 아기 장수가 태어났는데, 역적이 될 거라고 해서 맷돌을 얹혀서 아기를 죽였다고 한다. 그 아기 장수가 죽자 용마가 나타나서 울다가 이 산으로 올라갔다가 산 밑에 있는 용소에 빠져 죽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미악골** [마을] 두원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채골** [마을] 두원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부채를 펼쳐 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막골** [골] 예전에 산막이 있어서 붙여진 골이름이다. 예전에는 마을이 있었다. '상막골'이라고도 한다.

**상두원** [마을] 두원2리를 가리키는 말로, 두원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막골** [골] 마을에서 맨 위에 있는 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막골'이라고도 한다.

**설통골** [골] 설통을 많이 설치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털목이** [고개] 미악골에서 평창군 방림면 계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성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왜가리봉** [산] 마을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왜가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 [소] 마산등 앞에 있는 소(沼)를 가리키는 것으로, 용마가 이 곳에 빠져 죽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에서는 그냥 '소'라고 부르며, 예전에는 명주실 꾸리가 다 풀렸을 정도로 깊었다고 한다. 성우 리조트 입구 좌측에 있다. 이 소 옆에 성황당이 있었다.

**쟁피재** [고개] → 장피재

**장피재** [고개] 상두원에서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사냥꾼들이 노루사냥을 하다가 노루가 이 고개를 넘어가면 잡을 수 없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직동(直洞)** [마을] → 고든골

## 둔방내리(屯坊內里)

조선시대 때 둔창(屯倉)이 있었으므로 둔방안, 또는 둔방내(屯坊內)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창말, 넘은골, 샘골, 새터를 병합하여 둔방내리라 하였다. 이 마을의 이름을 따서 둔내면이 되었다.

### [둔방내1리]

**방아재** [고개] 둔방내1리 3반에서 석문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방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비석거리** [터] 삼거리 근처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러 개의 선정비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거리** [터] 횡성, 자포리, 석문리로 가는 세 갈래 길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창말** [마을] 창말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약수바위** [바위] 절터 뒤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바위에서 약수가 나와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골** [마을] 둔방1리 6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창고개** [고개] 안창말 앞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창말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창말** [마을] 현재 문화마을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시대 때 둔창이 있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창촌’이라고도 한다.

**창촌(倉村)** [마을] → 창말

**횡성고개** [고개] 절터골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걸어 다닐 때 횡성읍을 이 고개로 다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둔방내2리]

**건너말** [마을] 샘골 건너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검두재** [고개] 둔방내리에서 갑천면 상대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 상대리 마을명이 '검대'라고 하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꼬부랑재** [고개] 둔방내리에서 상대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길이 꼬불꼬불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넘은골** [마을] 샘골 너머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로, 현천리와 갑천면 상대리와 접해 있다. '안샘골'이라고도 한다.

**당골** [골] 넘은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둔내천** [내] 주천강 상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둔내면을 지나는 천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둔방내** [마을] 둔방내리를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 예전에 둔창이 있던 곳이라 붙여진 것이다.

**문둥바우** [바위] 넘은골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서당 학동들이 많이 놀던 곳이라 하여 문동(文童)바위라 했으나 지금은 문둥바우라 한다.

**범무골** [골] 범이 이 골에서 머물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양동(土養洞)** [마을] 선비들을 길러내는 마을이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예전에 서당이 있었다. 샘골을 달리 부르는 이름이다. 예전에 이 마을에서 한 해에 진사가 네 분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새터** [마을] 샘골 아래의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6번 국도변에 위치한 곳에 있다.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대'라고도 한다.

**새터뜰** [뜰] 새터에 있는 뜰을 가리키는 것으로, 둔내에서 가장 큰 뜰이다.

**샘골** [마을] 새터와 넘은골 사이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동'이라고도 한다.

**속골** [마을] 현천1리와 경계에 있는 마을로, 새터 안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정(松亭)** [터] 노송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대(新垓)** [마을] → 새터

**안말** [마을] 샘골 안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 1가구가 있다.

**안샘골** [마을] → 넘은골

**절터** [터] 샘골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동(泉洞)** [마을] → 샘골

**꽃대봉** [산] 새터 뒤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측량을 위해 표준기를 꽂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마암리(馬岩里)

말무덤이 있어서 말무덤, 또는 마암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화랑골, 술경지, 돌고개, 버덩말을 병합하여 마암리라 하였다.

### [마암1리]

**검두골** [마을] 마암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갑천면 상대리와 접해 있다. 검두재 옆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검두재** [고개] 마암리에서 갑천면 상대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곶고개** [고개] 마암리에서 청일면 갑천리 절바우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길이 곶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돌고개** [고개] 마암1리 4반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개 끝에 석벽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돌고개** [마을] 마암1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돌고개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돌보** [보] 돌로 보를 막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마을] 마암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본부락 뒤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말무덤이골** [골] 옛날 백씨 집에 아기 장수가 태어났는데 집안을 망칠 우려가 있다고 멧돌로 둘러 죽였다. 그 후 백마가 나타나서 삼일 동안 울고 다니다가 이곳에서 죽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나무골** [골] 예전에 돌배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백장골** [골] 검두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백장수가 태어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막거리** [마을] 마암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덧골** [골] 청일면 갑천1리와 경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하마암** [마을] 마암1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암리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마암2리]

**고물개봉** [산] 송정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 모양이 고무래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골말** [마을] 마암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골짜기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암고개** [고개] 버덩말에서 하마암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맹자골** [골] 송정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석문2리와 통한다.

**모중안** [마을] 마암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모를 심은 것처럼 소나무가 규칙적으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정’이라고도 한다.

**바우재** [고개] 마암1리 돌고개에서 버덩말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버덩말** [마을] 마암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넓은 들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촌’이라고도 한다.

**상마암** [마을] 마암2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암리 위에 있는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샘물보** [보] 송정 아랫쪽에 있는 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샘물이 많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낭고개** [고개] 예전에 고개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정** [마을] 마암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소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야미골** [골] 곶배봉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종대거리** [터] 일제 때 종대를 세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막거리** [터]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촌(坪村)** [마을] → 버덩말



**화랑골** [마을] 마암2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화랑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삽교리(雪橋里)**

삽다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구두미, 건중골, 매당덕, 바디장골, 옷밭골, 노루목, 국적, 선바우, 골말, 매봉, 맷돌거리, 곧은골을 병합하여 삽교리라 하였다.

### **[삽교1리]**

**골안이** [골] 자래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삽교2리 골말과 통한다.

**구용소** [소] 입석바우 밑에 있는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구유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국재기** [마을] → 국지기

**국적(局敵)** [마을] → 국지기

**국지기** [마을] 삽교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국적’ 또는 ‘국재기’라고도 한다. 큰국지기와 작은국지기가 있다.

**너러지** [골] 골안이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주봉 밑에 있으며 골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루목** [마을] 삽교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지형이 노루목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명소** [소] 삽다리에 있는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대박골** [골] 지당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마당대기** [마을] → 마당덕

**마당덕** [마을] 삽교1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매당덕’, ‘마당대기’, ‘매당대기’, ‘매당대’라고도 하는데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삽교리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진 안삽교의 묘소가 이 곳에 있다.

**매당대** [마을] → 마당덕

**매당대기** [마을] → 마당덕

**매당덕** [마을] → 마당덕

**문필봉** [산] → 산지봉

**바디장골** [마을] 삽교1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바디를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양동’이라고도 한다.

**배양동(培陽洞)** [마을] → 바디장골

**산지봉** [산] 삽다리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옷나무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삽다리** [마을] 삽교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삽교리를 개척했다고 믿어지는 安錫徹의 호인 雪橋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삽교1리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쓰인다.

**수산네뒤골** [골] 옷나무골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약물산** [산] 노루목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약수가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옷밭골** [골] 골안이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옷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물소** [소] 구룡소 밑에 있는 소(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곳에서 용이 승천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두박골** [골] 큰국지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입석바우** [바위] 삽다리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래골** [골] 삽교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절터골** [골] 삽다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 골에 있던 절은 원래 다른 곳에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 누가 하룻밤 사이에 이 곳으로 전축자재를 옮겨 놓았다고 한다.

**지당골** [골] 큰국지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초방머리** [터] 삽교1리와 석문2리 경계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사람의 형상을 닮은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 [삽교2리]

**갈밭구렁** [골] 삽다리재 옆의 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같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득양지** [골] 곧은골저수지(자포저수지)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양지쪽에 참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린 참나무를 예전에는 가독나무라고 했다고 한다.

**개서낭골** [골] 성틀목이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곡촌(谷村)** [마을] → 골말

**곧은골** [마을] 삽교2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둔내 유스호스텔 뒤쪽에 있으며 골게 뻗어 있는 골을 따라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약 50호 정도가 살았으며, 일제 때는 교사를 초빙해 마을에서 운영하던 학교도 있었다고 한다. 두원리 미악골에서 다니던 학생들이 있었다고 한다.

**골말** [마을] 삽교2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골이 꼬불꼬불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곡촌’이라고도 한다.

**곧은골저수지** [저수지] → 자포저수지

**구석마을** [마을] 곧은골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이 약간 들어간 곳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숲** [터] 맷돌거리의 삽교주유소 앞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제터골** [골] 곧은골저수지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풍수지리상 산지형이 좋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봉** [마을] 삽교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매봉산 밑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봉산** [산] 매사냥을 했던 곳이라 붙여진 산이름으로, 평창군 봉평면과 경계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매봉’이라고 하며 큰매봉과 작은매봉이 있다.

**매봉재** [고개] 매봉에서 평창군 봉평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매봉산에 있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맷돌거리** [마을] 삽교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맷돌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묻혀있다..

**맷돌고개** [고개] 산아래 식당이 있는 곳에서 맷돌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바른골** [골] 곧은골을 지나 매봉산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바로 올라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곧은골과 같이 연결되는 골이나 곧은골 사람들은 구분해서 부른다.

**박달고지** [골] 선바우 뒤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는 모른다.

**범바우** [바위] 맷돌거리 맞은편 산에 있는 호랑이 형상의 바위를 가리킨다. 현재 둔내유스호스텔 뒷산에 해당된다.

**사태골** [골] 선애재 왼쪽으로 있는 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사태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삽다리골짜기** [골] 매봉에서 삽교1리와 통하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삽다리재** [고개] 현재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위에 있는 고개를 가리킨다. 봉평면 사람들은 작은삽다리재라고 하며, 삽교1리에서 통하는 고개를 큰삽다리재라고 한다.

**선바우** [마을] 삽교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에 선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바우** [바위] 삽교2리 1반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애재** [고개] 매봉 앞 자연휴양림 옆으로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평창군 봉평면 선애로 넘어 가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성틀목이** [골] 곧은골 둔내 유스호스텔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숫가마골** [골] 삽다리재 옆에 있는 골로, 예전에 이 골에서 숫을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봉평면과 통한다.

**자지봉** [산] 자주봉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사이에 불끈 솟아 오른 것이 마치 남자의 성기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 묘를 쓰면, 그 후손의 딸은 바람이 난다고 한다.

**자포저수지** [저수지] 곧은골에 있는 저수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포곡1리와 석문2리의 논에 물을 공급한다. 곧은골 사람들과 외지에서 오는 낚시꾼들은 ‘곧은골저수지’라 부른다.

**장당골** [골] 선바우 맞은 편에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조롱고개** [고개] 곧은골에서 둔내 유스호스텔을 가면서 왼쪽으로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그만 고개가 여러 개 있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주전터골** [골] 곧은골 둔내유스호텔 안 양지쪽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골에서 돈 찍는 기계를 가지고 돈을 찍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질골** [골] 선애재를 넘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뒤골** [골] 선애재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는 큰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풀무골** [골] 박달고지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삽교3리]

**가마소** [소] 구두미에 있는 소(沼)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 모양이 가마솥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갈골** [골] 구두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갈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건중골** [마을] 삽교3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구두미** [마을] 삽교3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의 지형이 거북이 머리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두미재** [고개] 구두미에서 평창군 봉평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구두미에 있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단지골** [골] 건중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모양이 마치 단지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바우골** [골] 구두미 허궁다리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삽교1리와 통한다.

**더령골** [골] 구두미 대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작은더령골과 큰더령골이 있다.

**덕산내미골** [골] 건중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돼지덕골** [골] 구두미 분망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산신당이 있었다고 한다.

**분망골** [골] 구두미 당숲이 있는 윗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작은분망골과 큰분망골이 있다.

**사시래골** [골] 건중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삽교1리와 통하며 큰사시래골과 작은사시래골이 있다.

**산지당골** [골] 건중골 입구에서 남쪽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젓개** [골] 건중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삽교1리로 통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양구두미재** [고개] 구두미에서 평창군 봉평면 무일리로 통하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개가 두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횡성군과 평창군의 경계다.

**웃젓개** [골] 건중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삽교1리 안삽교의 묘가 있는 곳과 통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채동림이미골** [골] 건중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채동림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꽃대봉** [산] 건중골에서 삽교1리로 넘어가는 고개 옆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세부측량 때 표준기를 꽃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허궁다리** [골] 구두미 입구에서 북동쪽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화전밭골** [골] 구두미 더령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화전을 하던 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석문리(石門里)

석문바위가 있어서 석문바우, 또는 석문(石門)이라고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독바우골, 무랑골, 판관터, 꽃벼루를 병합하여 석문리라 하였다.

### [석문1리]

**꽃벼루** [마을] 석문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주천강이 흐르는 서쪽 벼랑에 단풍나무들이 많아서 마치 벼랑에 꽃이 핀 것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현동’이라고도 한다.

**바람부리** [마을] 석문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자포곡1리와 경계를 이룬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아재** [고개] 석문1리 1반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뱀애골** [골] 꽃벼루 용고개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뱀이 새끼를 배서 쌍룡고개를 넘어 삽교리 용소에 가서 용이 되어 승천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재들** [마을] 석문1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이 마을에 부처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는데 누군가 바위를 묻어 버렸다고 한다.

**송치들** [들] 선재들에 있는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쌍용고개** [고개] → 용고개

**양짓말** [마을] 석문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고개** [고개] 판관터에서 삽교리로 통하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고개로 용이 넘어 갔으며 고개가 두 개이다. 이들을 구분해서 큰용고개와 작은용고개라 하는데, 쌍용고개라고도 한다.

**응달말** [마을] 석문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응달쪽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롱고개** [고개] 꽃벼루와 판관터 사이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조랑말을 매어 놓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판관대(判官岱)** [마을] → 판관터

**판관터** [마을] 석문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판관대라고도 한다. ①예전에 판관벼슬을 하던 사람의 집터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난리 때 판관이 이 곳에서 쉬어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석문리** [마을] 석문1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석문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행상고개** [고개] 판관터에서 석문2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석문2리 공동묘지를 가기 위해 상여가 이 고개로 많이 넘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현동(花峴洞)** [마을] → 꽃벼루.

## [석문2리]

**독바우** [바위] 독박골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삽교리와 경계를 이룬다. 바위가 독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삽교1리 사람들은 이 바위를 기준으로 삽교리쪽으로 있는 골을 대박골이라 한다.

**독바우골** [마을] → 독박골

**독박골** [마을] 석문2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독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독바우골’이라고도 한다.

**돌고개** [고개] 물안골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암리와 통한다. 고개에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맹자골** [골] 사태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옛날에 이 골에 있는 호랑이가 담뱃대를 물고 맹자책을 읽었다고 한다. 마암2리와 통하며 ‘맹장골’이라고도 한다.

**맹장골** [골] → 맹자골

**물안골** [마을] 석문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통물방아가 있었다고 하며, ‘수용동’이라고도 한다. 전설에 따르면, 예전에 마을 입구에 유명한 약수가 있었으며, 그 약수터 앞에는 부잣집이 있었다. 손님의 출입이 많아 머느리는 힘이 들었다. 어느 날 탁발 온 중이 있어서 시주를 후하게 주며 집안에 손님이 오지 않게 할 방도를 물으니, 개를 잡아서 약수물에 넣으라고 하였다. 머느리가 그대로 하자 약수는 일반 물로 되고, 그 집은 손님이 끊어져 점차 가세가 기울어 망했다고 한다.

**사태골** [마을] 석문2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산사태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석문리** [마을] 석문2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석문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우고개** [고개] 화동리와 접해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화동리와 삼교3리 사람들이 이 고개를 넘어서 둔내장을 다녔다고 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석문바우** [바위] 독박골 앞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양쪽에 서 있는 것이 마치 문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석문과 큰석문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전쟁을 하면서 소금을 쌓아 둔 것이 굳어서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선유암소** [소] 양지말에 있는 소(沼)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선이 와서 놀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용동** [마을] → 물안골

**양지말** [마을] 석문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우밭골** [골] 양지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콩을 심던 농부가 한 여자에게 밥을 주고 그 사례로 콩 심는 일을 돕게 하였는



데, 소가 여자를 자꾸 피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농부가 채찍으로 여자를 때리니 여자가 여우로 바뀌어 도망갔다고 한다. 이 곳을 여우가 밭에서 일하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수골** [골] 물안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설에 의하면, 태기왕이 태기산으로 가는데 주력부대는 갑천·청일을 경유해 가고 일부 병력은 둔내로 들어와서 석문리 원수골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갔다고 한다. 당시 인솔자가 '원수'였다고 하여 원수골이라고 전한다.

**응달말** [마을] 석문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응달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춧대봉** [바위] 큰석문바위 위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춧대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영랑리(永浪里)

신라 때 영랑(永浪)이 선유암에서 놀았다고 해서 영랑이라 하였는데, 한때 영호리(永湖里)라고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래골, 중산(中山), 점말, 양지말, 하영랑(下永浪)을 병합하여 영랑리라 하였다. 이후 197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지말과 하영랑은 성산리로 명명되어 안흥면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래골** [마을] → 추동

**강구바우** [바우] → 선유암

**당거리** [터] 추동 인거터 옆 서낭당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

**뒷골** [골] 추동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막골** [골] 뒷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마지막 골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말등바우** [바위] 추동의 인거터 앞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인거의 거사가 실패하자 이인거의 말이 이곳에서 죽고, 이인거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바위에 묻었다고 한다.

**매방골** [골] 피나무골에 있는 골로, 매를 놓아 사냥을 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박씨네사이골** [골] 피나무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박씨들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아다리** [골] 피나무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방아다리처럼 갈라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봉** [산] 추동의 인거터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봉이 세 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이인거가 무술을 이곳에서 연마했다고 한다.

**새둔지** [마을] 추동 건너편에 있던 마을로, 새로 터를 잡은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유암** [바위] 중산의 냇가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라 때 영랑이 이 바위에서 놀았다고 한다. ‘강구바우’라고도 한다.

**소죽골** [골] 후평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의 유래는 모른다.

**솔골** [골] 피나무골 안에 있는 골로,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숫돌배기** [마을] 추동에서 휴양림 가는 고개 너머에 있던 마을로 예전에 숫돌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췌기골** [골] 뒤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췌기처럼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애미재** [고개] → 올림재

**올림재** [고개] 추동에 있는 고개로, 그 이름의 유래는 모른다. ‘오애미재’라고도 한다.

**우무골** [골] 뒤골 안에 있는 골로, 그 이름의 유래는 모른다.

**옹기점말** [마을] 예전에 중산에 옹기 점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영호 초등학교 자리가 옹기를 굽던 곳이라 한다.

**인거터** [터] 추동에 있는 터로, 조선조 인조 5년에 난을 이르켰던 이인거가 살았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기왓장이 나온다.

**점말** [마을] 예전에 현재의 후평 자리에 시루, 화로 등을 만드는 점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문재** [고개] 추동 입구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정문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산** [마을] 영랑리 1,2,3반에 속하는 마을로, 영랑리 중심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추동** [마을] 영랑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가래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래골’라고도 한다.

**꽃대봉** [산] 추동에 있는 산으로, 군에서 꽃대를 세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나무골** [골] 추동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피나무골과 작은피나무골이 있다. 피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난골** [골] 피나무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난을 피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수네집골** [골] 피나무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수네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후평** [마을] 영랑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중산 뒤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점말’이라고도 한다.

## **우용리(右用里)**

마을 지형이 우렁이와 같다고 해서 우렁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우용(右用)이 되었다 한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당중산, 문탄(文灘), 숲새터, 광탄(廣灘)을 병합하여 우용리라 한다.

### **[우용1리]**

**가운데골** [골] 큰골과 호랑골 사이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곳집골** [골] 땅중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곳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골말** [마을] 조항1리 6반에 속하는 마을로, 골짜기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산** [마을] → 당중산

**당산연못** [못] 당중산에 있는 연못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는 둔내에서 제일 컸다고 한다. 약 2,000여 평이나 되며 일제 때 마을 분들이 만든 것이다.

**당중산(堂中山)** [마을] 우용1리 5,6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산 중앙에 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땅중무’, ‘당산’이라고도 한다

**독박골** [골] 우용1리 4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두리봉** [산] → 수리봉

**땅중무** [마을] → 당중산

**말등바우** [바우] 숲새터 소로길 옆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말 등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망우리봉** [산] 숲새터에 있는 얇은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산에서 불놀이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골] 당중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터** [마을] → 숲새터

**솔이봉** [산] → 수리봉

**수리봉** [산] 스키장이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솔이봉’, ‘두리봉’이라고도 한다.

**숫돌봉** [산] 숲새터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곳에서 숫돌을 켜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숲새터** [마을] 우용1리 1,2반에 속하는 마을로, 숲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터’, ‘임신대’라고도 한다.

**송곳봉** [산] 산이 송곳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쇠스랑봉고개** [고개] 당중산에서 자포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의 봉우리가 세 개로 쇠스랑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말** [마을] 우용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안쪽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짓말** [마을] 우용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이골** [골] 우용1리 4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모양이 소 귀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항2리 후평과 통한다.

**운유골** [골] 조항1리 4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임신대(林新垓)** [마을] → 숲새터

**작은고개** [고개] 숲새터에서 운유골로 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개가 작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터고개** [고개] 둔내장에 갈 때 다니던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큰고개** [고개] 숲새터에서 당중산으로 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개가 작은 고개에 비해 높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숲새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두원** [마을] 두원리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랑골** [골] 가운데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랑이골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우용2리]

**광탄** [마을] 우용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넓게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너래울’이라고도 한다.

**그래울** [마을] → 문탄

**낱은터** [터] 광탄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래된 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너래울** [마을] → 광탄

**당거리** [터] 문탄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文灘防殺’이라고 쓴 작은 비가 있는데, 박재손이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한다. 글이 희미해서 알아보기 힘들다.

**등골** [골] 문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형상이 등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문탄** [마을] 우용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선비가 많이 배출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울이라고도 한다.

**솔고개** [고개] 문탄에서 두원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 소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문탄에서 주봉으로 통하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두골** [마을] 우용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조항2리 후평과 통해 있다.

## 자포곡리(自浦谷里)

자피실, 줄여서 자필 또는 자포곡(自浦谷)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알가지, 바람부리, 산제당, 시장터, 웅장골, 옷나무골, 자래골을 병합하여 자포곡리라 하였다.

## [자포곡1리]

**바람부리** [마을] 시장터에서 북쪽에 있는 마을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시장터** [마을] 자포곡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로, 장이 서는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5일·10일 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생골보** [보] 바람부리에 있는 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골 앞 새터에 있는 논에 물을 공급하는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쇠스랑봉** [산] 시장터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봉우리가 세 개로 쇠스랑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용리와 경계를 이룬다.

**양짓말** [마을] 시장터 북쪽에 있는 마을로, 양지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응달말** [마을] 쇠스랑봉 밑에 있는 마을로, 응달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포리** [마을] 자포곡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은 ‘곡’자를 빼고 ‘자포리’라고 한다.

## [자포곡2리]

**건넌골** [골] 아랫자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개울 건너 편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골알가지** [골] 알가지 안쪽에 있는 골짜기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예전에 여러 가구가 살았으나 현재는 없다.

**다물배기** [터] 아랫자필에 있던 것으로, 논에서 돌이 나올 때마다 쌓아 놓은 것이 동산처럼 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없다.

**더운골** [골] 아랫자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머드림골** [골] 제당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사태봉** [산] 아랫자필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사태가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막골** [골] 웃자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막혀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아랫자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이곳에 마을이 있었을 때는 마을사람들이 날을 잡아 정성을 다했다고 한다. 보통 ‘산지당’, ‘제당골’이라고 하는데 큰 바위와 수백년 된 버드나무를 모신다고 한다.

**상자포** [마을] → 옷자필

**선의재** [고개] 옷자필에서 삽교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삽교리와 경계를 이룬다. 삽교리에서는 ‘선애재’라 한다.

**아랫자필** [마을] 자포곡2리 3,4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회관을 경계로 자필의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자포’라고도 한다.

**알가지** [마을] 자포곡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 형상이 알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나무골** [골] 옷자필 선의재를 넘기 전에 정면으로 보이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웃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고개** [고개] 아랫자필에서 삽교리 골말과 통하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는 모른다. 길이 꼬불꼬불하다고 한다.

**옷자필** [마을] 자포곡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회관을 경계로 자필의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자포’라고도 한다.

**자래골** [골] 옷자필 선의재 좌측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짜기에 바위동굴이 있는데 그 곳에 자라가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제당골** [골] → 산지당골

**지둔지** [들] 옷자필에 있는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땅이 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차돌배기** [마을] 자포곡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산에 차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나무골** [골] 아랫자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피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자포** [마을] → 아랫자필

**할미바우** [바위] 선의재 중턱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는 모른다.

## 조항리(鳥項里)

마을 지형이 새의 목처럼 생겨서 새목, 또는 조항(鳥項)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바일, 양지말, 주점촌, 중간촌, 후평, 동박골을 병합하여 조항리라 하였다.

## [조항1리]

**골말** [마을] 조항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골짜기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금방앗간거리** [터] 바일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금광석을 분해하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까치박골** [마을] 중간말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까치 주둥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재** [고개] 바일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일** [마을] 조항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강의 흐름이 마치 배처럼 둥글게 원을 그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배나무가 많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일’ 또는 ‘이호동’이라고도 한다.

**배일** [마을] → 바일

**사흘같이** [들] 중간말에 있는 밭을 가리키는 것으로, 밭이 커서 예전에 이 밭을 소로 갈려면 사흘이 걸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목재** [고개] 주막거리에서 둔내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개가 마치 새 목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셋골** [마을] 까치박골 밑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골과 골 사이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숫가마골** [골] 중간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서 숫을 구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선바우** [바위] 중간말 뒤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경치가 좋아 신선이 놀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산** [산] 바일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르나, 이 산을 마을 분들은 중히 여긴다.

**앞산** [산] 바일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앞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소** [소] 바일에 있는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소에서 용이 등천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가물면 이 곳에서 기우제도 지냈다고 한다. 이 지역을 용수목이라고 한다.

**응달말** [마을] 조항1리 2반 조항분교 뒤에 있는 마을로, 응달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호동(梨湖洞)** [마을] → 바일

**인시골** [골] 중간말 둔내초등학교 조항분교(1999년 폐교)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사람이 많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점말** [마을] 조항1리 2반 속하는 마을로, 바일로 가는 곳에 있다. 예전에 옹기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종대거리** [터] 바일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종을 설치한 대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막거리** [마을] 조항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점촌’이라고도 한다.

**주점촌** [마을] → 주막거리

**주초골** [골] 중간말 인시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주초라는 약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간말** [마을] 조항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조항리 중앙에 해당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중간촌’이라고도 한다.

**중간촌** [마을] → 중간말

## [조항2리]

**도둑골** [골] 아래동박에서 안흥면 지구2리 상터와 통하는 골로, 예전에 도둑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박골** [마을] 조항2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동백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뽕밭골’, ‘상전동’이라고도 한다.

**뒷버덩** [마을] → 후평

**뽕밭골** [마을] 동박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뽕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전동’이라고도 한다.

**상전동(桑田洞)** [마을] → 동박골, 뽕밭골

**상터골** [골] 아래동박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안흥면 지구2리 상터로 통하는 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새목** [고개] 후평에서 방림면 계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작은 새목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동박골** [마을] 조항2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동박골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짓말** [마을] 조항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이재** [고개] 후평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에 있는 고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용리와 통하며 예전에는 이 고개로 둔내장을 다녔다고 한다. 우용리에서는 소 귀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웃동박** [마을] 조항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동박골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웃동박에서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와 통하는 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골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나무골** [골] 도둑골 옆에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피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영랑리 추동과 통한다. ‘피난골’이라고도 한다.

**피난골** [골] 피나무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곳으로 피난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두골재** [고개] 아래동박에서 우용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두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후평(後坪)** [마을] 조항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동박골 뒤에 있으면서 마을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뒤틀버덩’이라고도 한다.

## 현천리(玄川里)

현천리는 가무내가 있으므로, 가무내. 또는 현천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선락동(仙樂洞), 간궁중(間弓宗), 황달모루, 자작정(自作亭)을 합하여 현천리라고 하였으며, 면사무소 설치 초기에는 이곳에 둔내면사무소가 있었다고 한다.

### [현천1리]

**가매봉** [산] 가매봉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이 가마솥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매봉** [마을] 현천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에 가매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강감찬 장군이 원주 치악산에서 태기산까지 건너뛰다가 이 곳 가매봉에서 쉼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고 한다. 화가 난 장군은 부적

을 써서 산에 붙이며 칩이 나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고 한다. 이후 이 마을과 산에는 칩이 없다고 한다. 이후 장군이 강릉 어느 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개구리가 몹시 울어 부적을 붙이니 개구리가 울지 않았으며 현재도 울지 않는다고 한다.

**두명골** [골] 용수목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두명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근네** [마을] 현천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물 건너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골** [골] 용소목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유래는 모른다. 큰소골, 작은소골, 새소골이 있다.

**선락동(仙樂洞)** [마을] 현천1리 4,5반에 속하는 마을로, 신선이 와서 놀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수목** [터] 현천1리와 조항1리 바일 중간에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곳에서 용이 나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황달모루** [마을] → 황우촌

**황우촌** [마을] 현천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지형이 황소머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황우도강(黃牛渡江)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황달모루’라고도 한다.

## [현천2리]

**거릿말** [마을] 현천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큰길가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개구리바우** [바위] 범바위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개구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골** [마을] 현천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거릿말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형제고개** [고개] 현천1리와 2리 경계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겨울에 삼형제가 이 고개에서 모두 얼어죽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고개가 세 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성황당이 있었다.

**목고개** [고개] 거릿말에서 범바우로 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난리 때 이 고개에서 목을 지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바우** [바위] 범바우 중앙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배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범바우** [마을] 현천2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범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범바우** [바위] 현천2리 4반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랑이가 이 바위에 앉아서 놀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40여 년 전에 많은 비로 인해서 현재는 하천으로 떨어져 있다. 바위 옆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범바우고개** [고개] 범바우에서 소사리 갈골과 통하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범바우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보금산** [산] 거릿말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보뜰** [뜰] 거릿말에 있는 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를 막아서 물을 대는 논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채골** [마을] 현천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부채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빨건고개** [고개] 거릿말에서 현천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시빨건 흙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가무내** [마을] 현천2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무내 아래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현’ 또는 ‘하현천’이라고도 한다. 조금만 가물어도 내가 말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말** [마을] 현천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안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우박골** [골] 범바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여우가 자주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주골** [골] 범바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촘촘이 자주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젓마당고개** [고개] 안말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난리 때 다 타고 재만 남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막거리** [마을] 거릿말과 부채골 사이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머니골** [골] 범바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머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현(下玄)** [마을] → 아랫가무내

**하현천(下玄川)** [마을] → 아랫가무내

### [현천3리]

**간궁중** [마을] 원래 현천3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궁중리와 경계를 이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축산기술센타가 들어선 까닭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주했다.

**빨골** [마을] 원래 현천3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현재는 축산기술센타가 들어선 까닭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주했다. 그 이름의 유래는 모른다.

**상현(上玄)** [마을] → 웃가무내

**상현천(上玄川)** [마을] → 웃가무내

**웃가무내** [마을] 현천3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가무내 위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현’ 또는 ‘상현천’이라고도 한다. 조금만 가물어도 내가 말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직골** [골] 빨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똑바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현천4리]

**감투봉** [산] 응달말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이 감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거릿말** [마을] → 삼거리

**고돌고개** [고개] 자작정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더가니골** [골] 자작정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깊어서 “더가니 더가니”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궁리와 통한다.

**등너머** [마을] 현천4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등너머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지개뜰** [뜰] 삼거리에 있는 뜰을 가리키는 것으로, 무지개가 자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거리** [마을] 현천4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삼거리를 중심으로 마을이 위치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거릿말’, ‘아랫거리’라고도 한다.

**속땀** [마을] 현천4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뜰 중간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솔골** [골] 삼거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거리** [마을] → 삼거리.

**앞구렁** [논] 양지땀 앞에 있는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앞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땀** [마을] 현천4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말’이라고도 한다.(나이 드신 분은 양지땀, 젊은 사람들은 양지말이라고 한다.)

**양지말** [마을] → 양지땀

**역논구렁** [들] 삼거리에 있는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역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영남구렁이’라고도 한다.

**영남구렁** [들] 영남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역논구렁이’라고도 한다.

**음지말** [마을] → 응달말

**응달말** [마을] 현천4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덕고산을 끼고 응달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음지말’이라고도 한다.

**자작정** [마을] 현천4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물이 혼하다고 한다. ①예전에 자작나무로 만든 정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열너각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머니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모양이 주머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팽계골** [골] 자작정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의 유래는 모른다. 우천면 하궁리와 통한다.

**피나무재** [고개] 자작정에서 소사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피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황고개** [고개] 현천리에서 우천으로 통하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흙색이 진한 황색을 띠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흙다리골** [골] 삼거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돌은 없고 흙만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화동리(禾洞里)

괴화나무(훼나무)가 있어서 괴화골이라고 하다가, 변하여 고야골 또는 화동(禾洞)이 되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방가곡(芳佳谷), 정문거리, 무사골, 버덩말, 고시곡(古時谷)을 병합하여 화동리라 하였다.

## [화동1리]

**거북바우** [바위] 고시골 입구 마을회관 옆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김새가 거북이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설에 의하면, 거북바우가 있는 윗 마을에 부자가 살았는데, 손님이 많이 찾아들어 그 집 안주인이 힘들어 고심하던 중 탁발하러 온 스님에게 부탁하였더니, 스님이 거북바우 목을 잘라버리자 피가 나왔다. 그 후 그 집은 차츰 쇠퇴하고 손님이 끊겼다고 한다.

**고시골** [마을] 화동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청일면 고시리와 접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야고개** [고개] 점말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화동2리 고야골과 통하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깍은재** [고개] 고시골에서 청일면 고시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개가 깎아 지른 듯 험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사골** [마을] 화동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이 곳에 사는 어떤 분이 술이 취해 들에 누웠는데 불이 났다. 그 때 집에서 기르던 개가 그 불을 끄고 죽었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도 그 개를 위한 비석이 있었다고 한다.

**숫대배기** [마을] 화동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숫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점말** [마을] 화동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웅기가마가 있었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점촌’이라고도 한다.

**점촌(店村)** [마을] → 점말

**진등** [마을] 화동1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 뒷산의 산등이 길게 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화동2리]

**고야골** [마을] 화동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고야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괴화곡’이라고도 한다. 전설에 의하면, 이 골에서 뱀씨가 나왔다고 해서 화동리가 되었다고 한다.

**괴화곡(槐花谷)** [마을] → 고야골

**당뜰** [뜰] 평촌에 있는 뜰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서낭당이 있던 자리의 뜰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가곡** [마을] → 방가골

**방가골** [마을] 화동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방가곡’이라고도 한다.

**별아우** [마을] 화동2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별을 많이 키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봉암촌’이라고도 한다. 화동저수지 밑에 있는 마을이다.

**봉암촌(蜂岩村)** [마을] → 별아우

**서우개** [고개] 평촌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석문리와 통하며 작은서우개와 큰서우개가 있다.

**왜갈봉** [산] 흐르목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산에 왜가리가 많이 모여 들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문거리** [마을] 화동2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안광근의 효자 정문이 있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촌** [마을] 화동2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넓은 들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당화골** [골] 별아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흐르목** [마을] 화동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 [제보자]

(이종성, 남, 61세, 궁중리 토박이)

(심재길, 남, 54세, 정선 태생으로 25년 전에 두원1리로 이주)

(노희길, 남, 60세, 양구 태생으로 8세에 두원1리로 이주)

(황인구, 남, 64세, 진부 태생으로 12세에 두원2리로 이주)

(김세창, 남, 77세, 평양 태생으로 56년 전에 둔방내2리로 이주)

(한상국, 남, 69세, 둔방2리 토박이)

(김진섭, 남, 44세, 마암1리 토박이)

(김동규, 남, 83세, 마암2리 토박이)

(김옥례, 여, 79세, 마암2리 토박이)

(김호동, 남, 76세, 삼교1리 토박이)

(김순녀, 여, 45세, 삼교1리 토박이)

(김만옥, 여, 68세, 삼교1리 토박이)



(장복준, 남, 60세, 평안도 태생으로 4세에 삽교1리로 이주)  
(김영덕, 남, 66세, 삽교2리 토박이)  
(김복규, 남, 64세, 삽교2리 토박이)  
(윤만옥, 남, 76세, 황성 추동 태생으로 30년 전에 삽교2리로 이주)  
(윤양중, 남, 55세, 양양 태생으로 3세에 삽교2리로 이주)  
(윤찬중, 남, 62세, 양양 태생으로 10세에 삽교2리로 이주)  
(유정낙, 남, 61세, 삽교3리 토박이)  
(손봉규, 남, 48세, 석문1리 토박이)  
(김재선, 남, 65세, 석문1리 토박이)  
(허인주, 남, 55세, 석문2리 토박이)  
(허봉주, 남, 62세, 석문2리 토박이)  
(주치한, 남, 68세, 영랑리 토박이)  
(송인석, 남, 80세, 계촌 태생으로 10세에 영랑리로 이주)  
(김진옥, 남, 67세, 영랑리 토박이)  
(이재달, 남, 66세, 우룡1리 토박이)  
(이재신, 남, 57세, 우룡1리 토박이)  
(박종선, 남, 54세, 우룡1리 토박이)  
(정선화, 남, 62세, 우룡2리 토박이)  
(이갑조, 남, 66세, 자포곡1리 토박이)  
(신승천, 남, 55세, 자포곡2리 토박이)  
(김용기, 남, 63세, 자포곡2리 토박이)  
(전한영, 남, 66세, 조항1리 토박이)  
(박찬홍, 남, 64세, 조항2리 토박이)  
(문용주, 남, 69세, 방림면 계촌 태생으로 17세에 조항2리로 이주)  
(장광용, 남, 60세, 조항2리 토박이)  
(나성순, 남, 52세, 조항2리 토박이)  
(염창근, 남, 46세, 조항2리 토박이)  
(신효순, 남, 66세, 현천1리 토박이)  
(조규암, 남, 54세, 현천1리 토박이)  
(조규화, 남, 71세, 현천1리 토박이)  
(신경순, 남, 60세, 현천1리 토박이)  
(안두승, 남, 64세, 현천2리 토박이)  
(김귀출, 여, 68세, 현천2리 토박이)  
(김태근, 남, 58세, 경북 태생으로 14세에 현천2리로 이주)

- (이창희, 남, 48세, 현천3리 토박이)
- (박상규, 남, 41세, 현천4리 토박이)
- (김동필, 남, 61세, 현천4리 토박이)
- (이철호, 남, 49세, 현천4리 토박이)
- (황경현, 남, 63세, 현천4리 토박이)
- (강장선, 남, 77세, 함경남도 태생으로 55년 전에 화동1리로 이주)
- (장재훈, 남, 41세, 화동1리 토박이)
- (조명환, 남, 65세, 화동2리 토박이)
- (김성국, 남, 53세, 화동2리 토박이)